



2021년 3월 14일(제1026호) 시순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의 신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제1독서 역대기의 저자는 주님을 분노케 한 백성들의 행동을 두고 “역겨운 짓”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을 더럽혔으며,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분노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칼데아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독서와 짝을 지은 화답송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화답송에 비추어 독서를 다시 읽어 보면, 주님의 분노는 갈 길 잃은 그분의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십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자비가 또다시 드러납니다. 인간의 배반에 대한 주님의 징벌과 자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끝에서 주님의 사랑은 결국 당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죄배들에게 내어 놓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독서와 함께 복음 속 위 구절을 묵상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살을 찢는 육체적 고통만은 아닌 듯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배신, 조롱과

비웃음, 역대기 저자가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한 행동들... 또, 그 모든 행동들의 쫓값까지... 하느님께서서 세상에 내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 공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쫓값을 짊어지신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 믿음을 통해 각자의 것이 됩니다. 늘 부족한 믿음이지만, 때문에 그것마저 주님께 청하며, 아래 오늘 미사의 본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이승원(베드로) 신부
은성대(19집비전)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2역대 36,14-16.19-23
- 회 답 송**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 2 독 시** 에페 2,4-10
-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 복 음** 요한 3,14-21
- 영 성 제 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다섯 번째 시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공경하올 베를 주교님과 매스트르 신부님의 계획대로 조선으로 갈 출발일을 12월 22일¹⁾로 정하였습니다. 매스트르 신부님은 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스승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험이 없지 아니하므로, 존경하올 베를 주교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이 더해질까 염려하여 매스트르 신부님의 동행을 금하셨습니다.

만일 직접 대면하여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직도 스승님께 드릴 말씀이 많으나, 편지에 손으로 이 모든 사정을 일일이 적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멈추고 공경하고 경애하올 스승님께 이 작은 아들을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순명하는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인사드립니다.

추신 :

새 소식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개봉하였습니다.²⁾

여섯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1월 15일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저는 계획한 대로 12월 23일에 떠나 나흘 후에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했습니다. 변문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굉장히 큰 무리를 거느리고 북경으로 들어가는 조선 임금님의 사신 일행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1) 이 날짜는 출발 예정일이었고, 실제로 출발한 날짜는 12월 23일이었다(다음의 여섯 번째 서한 참조).

2) 그러나 추신은 보이지 않는다.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혼자가 아니더라.



언제부터,

든든히.

거울에

비치는 내가,

날.

혼자가

지켜주는 이가,

아니더라.

함께 하고

있더라.

상화이야기

마리아 막달레나



세속적인 삶을 뒤로 하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성녀가 된 마리아 막달레나는, 많은 종교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주제였다. 아름답고 육감적인 여인이 긴 머리를 풀어 흘트린 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모습은 많은 후원자들이 선호 하던 모습이였다.

그러나 도나텔로의 이 작품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정신성만을 부각한 듯, 세속적인 어떤 면도 보여주지 않는다. 현대의 조각작품이라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작품은, 놀랍게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주류이던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다.

도나텔로, 1454년 ~ 1455년 제작
 나무, 188cm
 피렌체 미술관, 이탈리아

이는 이 당시에 피렌체를 휩쓸던 극단적 금욕주의자 사보나롤라의 설교의 영향 때문으로,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던 보티첼리도 사보나롤라의 영향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마른 몸에, 험형한 정신이 돋보이는 표정과 눈빛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절대적 금욕과 희생, 헌신의 삶이 그녀를 어떻게 탈바꿈해놓았는지 보여준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다분히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길 강권하는 듯하다.



김은혜(앨리스넷)

교 구 소 식

◆ 교구장 동정

- 참사회의

때·곳: 3월 19일(금)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중부원회 회원실 워킹 미시 - 시순 제4주일: 토성대 최권우 신부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